

2023. 2. 11.(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10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

영업지원처장	서길호	02-6311-9580
고객만족팀장	이재명	02-6311-9550
담당자	최인서	02-6311-9552
관련 누리집	www.seoulmetro.c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서울교통공사, 거리두기 끝나며 지하철 유실물도 크게 늘었다

- '22년 유실물 총 127,387건으로 '21년 대비 125% 수준으로 대폭 증가
- 유형별로 지갑이 24.5%로 가장 많아, 휴대전화-의류-가방 순으로 증가추세
- 지하철에서 물건 분실 시 정확한 시간과 위치 파악이 우선, 선로 유실물은 다음날 인계 가능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2022년 한 해 동안 공사에 접수된 유실물이 총 127,387건으로, 2021년 유실물 101,618건 대비 125%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지하철 이용승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각종 행사와 저녁 모임이 늘어나면서 유실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1~8호선 수송 인원 2,153,711,304명은 2021년 수송인원 1,951,034,079명 대비 110%를 기록했다.

〈 최근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실물은 지갑 〉 휴대전화 〉 가방 순 〉

- 지난해 지하철 내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으로 총 31,228건이 접수됐다. 전체 유실물 중 24.5%를 차지했다. 그 뒤로 휴대전화(16.5%) 〉 의류(14.4%) 〉 가방(14.2%) 순으로 집계되었다.

○ 최근 3개년 유실물센터 유형별 처리실적

(단위:건)

구 분	총 건수	지 갑	가 방	휴대전화	의 류	귀중품	기 타
2022년	127,387	31,228	18,093	21,053	18,333	5,963	32,717
비 율	100%	24.5%	14.2%	16.5%	14.4%	4.7%	25.7%
전년 대비 증감	25%	26%	22%	29%	31%	56%	17%
2021년	101,618	24,768	14,804	16,323	14,015	3,831	27,877
비 율	100%	24.4%	14.6%	16.0%	13.8%	3.8%	27.4%
전년 대비 증감	-2%	2%	-16%	-5%	2%	25%	-0.4%
2020년	103,957	24,209	17,709	17,238	13,746	3,073	27,982

□ 가방에서 휴대폰, 지갑 등으로 가장 많이 잃어버린 지하철 유실물 품목도 변화 중이다. 10년 전 가장 많은 품목이었던 가방은 최근에는 4번째로 크게 밀려났다. 가방은 2006년 전체 유실물 중 31.6%(16,355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휴대전화가 1위를 차지했다.

□ 2018년 이후부터는 지갑 분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접수 되는 지갑류 중 대부분이 얇은 카드 지갑인 것을 감안하면, 지갑 내 교통카드를 개찰구 등에서 사용 후 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 최근 20년간 많이 접수된 유실물 유형 변화

연도	2002년~2013년	2014년~2017년	2018년~2020년	2021년~2022년
1위	가 방	휴대전화	지 갑	지 갑
2위	휴대전화	가 방	가 방	휴대전화

〈본인 인계율은 63% 수준, 휴대전화는 대부분 다시 찾아가〉

- 2022년에 접수된 유실물 중 80,191건(63%)의 유실물이 본인에게 직접 인계됐다. 29,618건(23%)은 경찰에 이관되었고 17,578건(14%)은 보관된 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본인 인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휴대전화로 94.1%에 달했다. 가방(78.9%), 지갑(78.2%) 역시 높은 본인 인계율을 기록했으나, 의류는 18,333건 중 단 1,833건만 본인에게 인계되며 10명 중 9명은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물건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않고 시간과 위치 확인 필수!”〉

-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 갑자기 물건을 두고 온 것을 인지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사 관계자는 잃어버린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객안전실에 유실물을 신고하기 전, 열차 하차 시각과 방향, 승·하차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유실물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열차 하차 시간과 방향, 내린 위치는 유실물을 찾는 중요한 정보이다. 해당 정보를 통해 탑승한 열차를 특정하지 않으면 유실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을 통해 선로로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는 당일에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선로에 떨어진 유실물은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 시간에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선로에 물건이 빠졌을 때에는 물건의 종류와 승강장 위치를 함께 고객안전실로 신고하면, 영업 종료 후 수거해 다음 날부터 인계받을 수 있다.
 - 간혹 영업 중에도 물건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들로 인해 역 직원은 매우 난감해진다. 한 역 직원은 “소중한 물건을 빠르게 찾고 싶은 마음은 공감하지만,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 시간 중에는 선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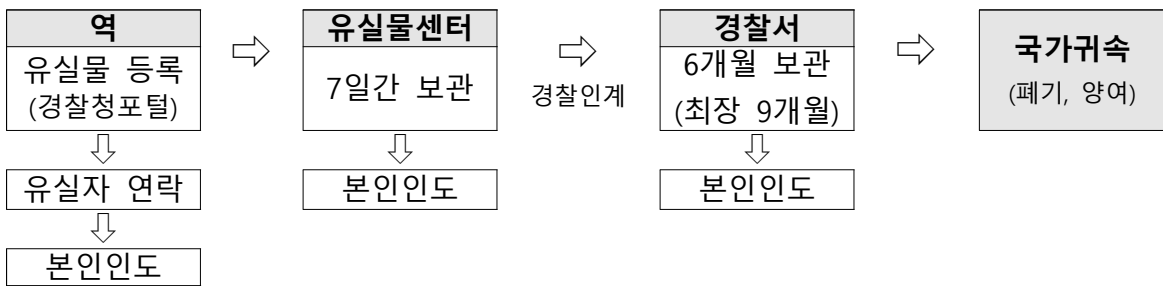
<인터넷에서 잃어버린 물건 검색 후 역이나 유실물센터에서 인계받을 수 있어>

- 각 역에서 유실물이 접수되면 우선 경찰청 유실물 포털 사이트인 'lost112' (www.lost112.go.kr)에 등록하며, 이후 호선별로 운영 중인 유실물센터로 인계된다. 승객이 바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1주일간 보관 후 경찰서로 이관한다.

※ 유실물센터 위치 및 연락처

담당 호선	센터명	소재역(호선)	위 치	연 락 처
1·2호선	시청 유실물센터	시청역(2)	지하 2층	02-6110-1122
3·4호선	충무로 유실물센터	충무로역(4)	지하 2층	02-6110-3344
5·8호선	왕십리 유실물센터	왕십리역(5)	지하 1층	02-6311-6765, 8
6·7호선	태릉 유실물센터	태릉입구역(7)	지하 3층	02-6311-6766, 7

※ 유실물 처리 절차



- lost112 사이트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할 수 있다. 날짜와 물품 유형, 잃어버린 위치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진이 등록되기도 한다. 검색 결과 본인의 유실물을 찾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물건이 보관된 역 또는 유실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 lost112 메인 홈페이지 및 검색 화면

- 한편, 유실물센터는 지하철 내 물품 보관함에 유실물을 맡기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유실물센터가 소재하는 역의 물품 보관함에 유실물을 보관하고 물건 주인에게 물품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한다. 야근 등으로 유실물센터 영업시간 중 찾아갈 수 없는 시민들에게 크게 유용한 서비스이다.

-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지갑이나 가방에 명함 등을 넣어두거나, 분실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면 물건을 되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며, “선로에 물건이 빠지면 안전상의 조치로 해당 영업시간 중에 찾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유실물 센터 사진 4장. 끝.



▲ 월별 우산 등 유실물들이 담긴 포대



▲ 총무로 유실물 센터의 지갑 유실물 중 일부



▲ 여행가방, 쇼핑카트 등의 유실물들



▲ 연락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의류 유실물